

2월6일(월)/약1:12~18 (2)

**제목: 아버지를 욕되게 하는 자식들**

야고보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은사와 선물은 좋은 것이라고 하였다(17절). 야고보는 하나님을 “빛들의 아버지” (17절)라고 하였다. 이 말은 태양과 달과 별의 창조자를 가리킨다. 이렇게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은 “변함” (17절)이 없으신 분이므로 “회전하는 그림자” (17절)가 없으신 분이요, 회전하는 그림자는 움직이는 그림자를 말한다. 그림자는 빛과 물체의 방향에 따라 늘 모양이 변한다. 그러나 하나님께는 그러한 변화가 없으신다는 말이다. 이런 하나님이 사람에게서 작정하고 주시는 모든 은사와 선물은 항상 좋은 것이라는 것에는 절대 이의가 있을 수 없다고 야고보는 말한다. 크리스찬은 하나님께서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받은 자기의 작품이다(18절).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다 변하지만 자식에게 좋은 은사와 선물을 주시는 하나님의 속성은 변하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은사와 선물을 주셨는가? 그것은 다 선한 것이며 좋은 것이다. 그것을 잘 사용하면 엄청난 에너지를 낼 수 있다. 좋은 것이고 선한 것이라는 말에서 그것을 짐작할 수 있다. 우리는 한 가지 이상의 은사와 선물을 아버지께로부터 받았다.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도 조용히 산다면 그것은 아버지를 욕되게 하는 것이다.

2월7일(화)/약1:19~27 (1)

**제목: 말로 망할 수 있다.**

야고보는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 하며” (19절)라고 하였다. 남의 말을 귀담아 듣는데는 열심을 내고, 자기 의견이나 주장을 말할 때는 신중하라는 뜻이다. 그러면 과오를 저지름 일이 훨씬 줄어들 것이다. 기다리면서 많은 것을 듣고 성급하게 말하지 않는 습관을 가진다면 구설수에 오를 일이 거의 없다. 그래서 잠언서 기자는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하기 어려우나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잠10:19)고 하였다. 또 야고보는 “성내기도 더디 하라” (19절)고 하였고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20절)고 충고하였다. 여기서 주의해야 할 것이 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화를 내지 않을 수 없다. 불의한 일을 보고도 화를 내지 않는다면 인간이 아닐 것이다. 예수님도 불의와 부정 앞에서 순백한 분노를 표출하셨다(마21장). 야고보가 여기서 의미하는 것은 신경질적인 화, 근거를 알 수 없는 성냄, 자기 이기적인 노여움, 기질적인 분노, 시끄럽기만 한 잔소리 등이다. 순백한 분노는 크리스찬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이다. 사람들은 끊임없이 ‘분노’ 하고픈 유혹을 받는다. 그럴 때 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분노인지 그렇지 않은지를 생각해야 한다(20절).

2월8일(수)/약1:19~27 (2)

**제목: 행하지 않으면 물골입니다.**

야고보는 악을 버리고 순수한 마음으로, 온유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그리고 그 받은 말씀을 반드시 실행으로 옮기는 사람이 되라고 한다(21~22절). 그리고 야고보는 그렇게 실행하지 않는 사람은 자기를 속이는 사람이라고 하였다(22절). 야고보는 이런 사람을 이렇게 비유했다. 온갖 솜 칠로 더럽혀진 얼굴을 한 사람이 거울 앞에 섰을 때는 세수를 해야겠다고 자각하지만, 그 거울 앞을 벗어나면 자기 물골을 잊어버리고 세수해야 한다는 것도 잊어버리는 사람과 같다고 하였다(23~24절). 말씀을 들을 때는 그 말씀이 마치 거울과 같아서 자기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비춰준다. 말씀 앞에서면 그 말씀은 어디가 잘못되었는지, 무엇을 고쳐야 하는지 정확하게 보여준다. 그런데 말씀을 듣는 것으로만 그치고 더 나아가지 못한다면 그는 그 물골 자체로 살아가게 된다. 그러므로 들은 말씀을 행해야지만 기형으로 살지 않게 된다. 예배에 열심히 참석하는 것으로, 성경공부에 몰입하는 것으로, 교회 봉사를 열심히 하는 것으로 크리스천으로써 충분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 아니다. 성경을 공부한 후 배운 것을 실행해야 한다. 실행하지 않는 크리스천은 불쌍사나운 물골을 가진 자라고 야고보는 말한다.

2월9일(목)/약1:19~27 (3)

**제목: 누가 영성있는 자인가?**

야고보는 참 경건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다. 첫째, 참 경건은 입을 잘 다스리는 것이다(26절). 그러나 입을 함부로 사용하는 사람의 신앙은 헛 것이다(26절). 입이 무절제한 사람의 믿음이 무(無)라는 것은 안 믿는 것과 같다는 뜻이다. 둘째, 참 경건은 고아와 과부를 돌아보는 것이다(27절). 세째, 참 경건은 세속에 물들지 않게 거룩을 지키는 것이다(27절). 어떤 사람이 영성있는 사람인가? 어떤 사람이 경건한 사람인가? 사람에게 최선을 다하는 자이다. 우리가 생각하는 영성과는 약간의 차이가 있다. 일반적으로 영성있는 사람의 이미지가 어떤가? 집회시에 손을 높이 들고, 우아한 얼굴로, 눈물을 강같이 흘리며 찬양을 하는 사람, 혹은 기도에 몰입했다하면 서너 시간은 거뜬히 지내고 오는 사람, 항상 신비한 말로 기도하는 사람, 심오한 체험에 대한 간증이 많은 사람, 환상을 자주 보는 사람, 남의 마음을 꿰뚫어 알 수 있는 사람, 상당히 많은 성경 구절을 암송하는 사람 등등의 사람이 아닌가? 그러나 성경이 인정하는 참 경건은 무엇인가? 사람에 대한 순결이다. 누가 경건한 크리스천인가? 이웃에게 해 끼치지 않는 크리스천, 특히 고아와 과부같은 약한 이웃을 돌아보는 크리스천이다.

2월10일(금)/약 2:1~13

**제목: 사람 차별은 범죄입니다.**

당시 교회 안에 사람을 차별하는 편파적인 편애가 있었다. 특히 용모와 돈으로 사람의 값을 매기는 관행들이 있었다(1절). 부자로 보이는 사람에게는 예의와 존중을 갖추고 가난하게 보이는 사람에게는 함부로 대하는 사람이 있었다(2~3절). 뿐만 아니라 부자와 가난한 자 사이에 심각한 일들이 벌어졌다. 당시 교회 안에 고리대를 하는 부자 교인이 있었는데 이들은 빚을 못 갚는 가난한 교인들을 체포해서 바로 법정에 끌고 갔다(6절). 야고보는 “하나님께서서는 가난한 자들을 택하셔서 믿음에 부자가 되게 하셨는데 어떻게 당신들이 가난한 자들을 업신여기느냐?”며 분개하고 있다. 야고보는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9절)며 문책하고 있다. 교회 안에서 사람 차별은 심각한 범법 행위이며 그런 사람은 범법자이다. 오래된 부자보다 졸부들이, 많이 아는 자보다 조금 아는 자들이 항상 요란하다. 그러나 사람이 가진 자량과 의는 하나님 앞에서 더러운 누더기 보다 못하다. 우리는 모두 다 누더기를 걸친 사람들이다. 우리는 사람 차별할 처지가 못 되는 사람들이다. 그럼에도 사람을 차별하면 범법자로 살 수 밖에 없는 것이다.



## 직장 · 가정 예배 모범문



작성자 : 박유신 목사



대한예수교  
장로회

**안산제일교회**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고잔2동 647-2(중앙동 7단지 뒤)  
Tel.(031)485-0955~7 Fax.(031)401-2370